

【 2017.3.3(금)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
동 건설회관에
서 열리는 건설
공제조합 운영

위원회에 참석.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설
공제조합 운영위
원회에 참석한다.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경제 '암운'

도내 대형SOC을 종료
후속사업 경제성 발목
확정 때까지 힘로 예고

올림픽 이후 대형국책사업이 전
무, 지역경제에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형SOC사
업도 올해 마무리되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2일 강원도

도내 역대 대형 SOC순위(단위:억)

- 원주-강릉철도 3,9110
- 동서고속도로(춘천-양양) 2,8672
- 춘천-속초철도 2,0637(계획중)
- 서울-춘천고속도로 1,7320
- 제2영동고속도로 1,5357

에 따르면 올해 원주-강릉철도
와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구
간 사업이 완료된다. 역대 도내 S

OC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
업비가 투입된 원주-강릉철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
춰 올 연말 개통된다. 동서고속도
로 동흥천-양양구간도 역시 올
상반기 공사를 마쳐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을
맞게 된다. 정부는 원주-강릉 철
도와 동서고속도로 춘천-양양구
간 사업에 그동안 각각 3조 9110

억원과 2조 8672억원의 사업비
를 투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조 5397억원이 투입된 제2영
동고속도로도 사업을 마쳤다.

한해 수천억원씩 투입되던 대
형 SOC사업이 지난해와 올해 잇
따라 종료되면서 도는 후속대책
으로 지난해 춘천-속초철도사업
을 어렵게 확정시켰지만 이들 사
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사
업 초기라 내년에 투입되는 사업
비가 200억원을 넘지 않는다. 그
나마 계속사업으로 동해선(포
항-삼척)철도와 중앙선(원주-
제천)철도사업이 진행되지만 사
업비 투입이 도내보다 경북과 추
북지역에 치우쳐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업비가 온전히 도내 지
역에 투입되는 대형 SOC사업의
명맥이 사실상 끊기게 된다. 발
등에 붙어 떨어진 도는 △제천-삼
척고속도로 △춘천-철원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를 신규 3대 핵심 국
비사업으로 정해 국가 중장비 계획
반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각각 4조 5000억원, 2조
3612억원, 1조 100억원의 사업비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성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확정되기
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백오인

1000억 미만 공공공사 대형사 입찰 제한 논란

재벌사 독점 방지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입찰 참가 확대 전망
기술력 차이 안정성 의문 우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0억 미만 공사
에 재벌 건설사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이
대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
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그 혜택이 특정 대형건설사가 아닌 모든
건설사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현재 대형 공공
사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
충분한 노동인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
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도내에서 진
행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도 도내 업체들은 컨소시엄으로 공사에
참여할 뿐 주시공사는 모두 대형건설사

들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대형 국
책 SOC사업 역시 대형건설사들이 주시
공사다. 이 때문에 관련법에 개정되면
도내 업체들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형 공사의 경우 안정성을 담
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형건설사 참
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철도
와 고속도로, 대형 토목공사는 중소 건
설사가 맡기에는 기술력 차이 때문에 현
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발주

처들이 대형 건설사들을 선호하는 이유
다. 또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심사에서 중소 건설사들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입찰제도 역시 중소 건
설사 위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실적을 신고한 업체는 원주 요진건
설산업(4390억원), 원주 에스지건설
(1181억원) 단 두 곳뿐이다.

안은복 rio@kzd.net



유주현 제27대 대한건설협회 회장 취임 유주현 신한국 건설 대표가 2일 대한건설협회 제27대 회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 회장은 "건설업계가 당연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지난 6년간 협회를 이끌어 온 최삼규 회장은 이날 이임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2면 안윤수기자 ays77@

스타트 늦은 해외수주, 속도 낸다

올 1~2월 누적 28억달러 그쳐 작년 같은기간보다 43% 감소
중동지역 등 발주 기지개하면
예년 수준 회복 전망 잇따라

1~2월 해외 누적 수주액 비교 (단위:억달러)



해 14억1882만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같은 기간 태평양·북미지역은 10억 5994만달러에서 461만달러로 급감했다. 반면 중동지역 수주액이 194만달러~11억3034만달러)이 크게 늘어 구겨진 자존심을 일부 살렸다. 해건설 관계자는 "연초와 아직은 해외 사업 발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수주 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일부 있어 실수주액이 기대치를 밑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시장 부진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서 수주액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올해 수주액이 작

년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국내 해외수주액은 282억달러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해외수주 규모는 30억달러 안팎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관협력 강화와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설정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진작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유가 안정화 등으로 중동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의 수주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기관들도 해외수주액이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520억달러로 예상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정진석 유가 반등에 따라 중동국가에서 발주하는 플랜트사업 규모가 731억달러로 작년보다 약 6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발맞춰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7 경제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작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hnews@

도·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제27대 대한건설협회장에 취임한 유주현 회장이 이임하는 최삼규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유주현 제27대 대한건설협회 회장 취임

“한국건설, 도전·극복의 연속 재도약과 발전의 기회 만들자”

최삼규 전 회장 이임식도

유주현 신한국 건설 대표가 2일 대한건설협회 제27대 회장에 취임하며 3년 임기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안상수·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최경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그리고 건설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기대의 뜻을 전했다. 유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29일 임시총회에서 결선을 통해 차기 회장에 선출됐으며 앞으로 3년간 대한건설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유 회장은 △재난 받고 일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왜곡된 건설시장 바로잡기 △새로운 건설시장 발굴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설업계가 당연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회장은 건설산업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때 건설제도도 관행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고 지난 반 세기 동안 축적된

SOC와 높아진 주택보급률로 건설부자는 축소되고 있다”며 “국민과 청년들은 건설산업을 점차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그러나 70년의 한국건설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기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1953년 경기 안양 출생으로 1993년 경기도회 간사를 시작으로 대의원, 경기도회 회장, 감사, 회원이사 등 역임하는 등 20년간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적정공사비 보장, 각종 규제 개선, 회원 서비스 개선 등에 앞장서왔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한 업계 인사는 “신임 회장이 건설협회와 업계의 현안 및 과제를 워낙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대·중소 건설사의 고충과 의견을 건설정책과 제도에 균형감 있게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년 동안 대한건설협회와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아온 최삼규 전 회장은 이날 이임식을 가졌다. 최 전 회장은 “오랫동안 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최저가격할체·실적공사비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표준시장단가제 도입 등 업계의 수익구조 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앞으로도 협회와 업계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동진건설, 남해 금산서 2017년 수주·안전기원제

강원 원주 소재 동진건설(대표 이사 정동기)은 지난 1일 경남 남해 금산에서 2017년 수주 및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현장소장을 포함해 팀장급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정동기 대표는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주문했다.